

나노신소재, 전자소재 메이저 도약

TCO타겟 양산기술 확보에 공정효율 대폭 향상 ... 2월9일 코스닥 상장

태양전지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는 나노신소재가 2월9일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다.

박장우 나노신소재 대표는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환경기술(ET) 등 신 성장동력 산업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밝혔다.

나노신소재는 투명전도성 산화물(TCO) 타겟을 주로 생산하는데, 투명한 동시에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진공 상태에서 증발시켜 태양전지와 디스플레이 표면을 코팅하는데 사용된다.

매출비중은 TCO타겟이 74.28%에 달하고 적외선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코팅물질 등이 18.67%, 반도체 미세연마용 나노소재가 7.05%를 차지하고 있다.

박장우 대표는 “원통형 TCO타겟 양산기술을 확보해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기존 판상형 TCO타겟 공정효율은 30%에 불과했지만 원통형으로 효율을 최대 90%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2009년에는 매출액 200억원, 영업이익 52억원을 기록했고, 2010년에는 3/4분기까지 매출액 228억원, 영업이익 85억원을 거두었으며, 2007-09년 연평균 성장률은 52%를 기록했다.

다만, 2010년 3/4분기 수출비중이 88.3%에 달해 환율 변동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TCO생산에 필요한 인력의 수입비중이 94.6%에 달해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나노신소재는 매출을 확대하고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모자금 251억원 가운데 94억원(37%)을 인력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연구개발에 32억원, 설비증설에 10억원, 차입금 상환에 48억원 가량을 사용할 계획이다.

공모 주식수는 177만9000주, 공모희망가액은 1만4500-1만6500원으로 공모자금 총액은 258억-294억원으로 알려졌다. 1월26일부터 양일간 청약을 거쳐 2월9일 상장한다.

나노신소재는 2000년 3월 한밭대 교수인 박장우 대표가 소재산업 국산화를 기치로 학생들과 창업한 회사로,는 충북 청원군 부용공단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대전 대덕테크노벨리에 신규공장을 짓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17>